

2020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



오 예 승 작 곡 발 표 회

영감의 원천

이 곳에서 너를 만났다

제작 판이오

후원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영남
영남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영감의 원천

작곡가, 연주자, 관람자가 모두 주체적으로 예술적 경계를 함께 넘는 경험을 하려는 의도에서 '영감의 원천'을 기획하였다. 장르간의 경계를 허물고 싶은 생각으로 창작을 해오면서, 시행착오를 하고 배움을 얻어가며 연주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내 욕심으로, 한 분야에서 성숙되어온 연주자들에게 그 동안 무리한 요구들을 해온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 연주회의 작품들은 혼자 작곡하고 결과물을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믿는 연주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협업하며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고 싶었다. 이를 통하여 연주자들이 가장 잘 아는 본인들의 악기로 스스로의 경계를 넘어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음색을 찾아내고, 음악전공자들만이 아닌 일반 관중들도 흥미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목표로 이 음악회를 준비하였다.

Profile

작곡가 오예승은 현대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국악, 영상음악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음악의 파편들을 수집해 자신만의 음악어법으로 표현한다. 연세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한 후 도미하여 뉴욕대학교에서 작곡 및 영상음악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UCLA에서 작곡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임지선, Ian Krouse, Paul Chihara, David Lefkowitz, Deniz Hughes를 사사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강의하고, 극 콘서트 창작집단 <판이오>의 음악감독으로 다양한 공연기획과 작편곡을 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오페라뱅크, 네오피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화음 챔버 오케스트라, 서초교향악단, 공주시 합창단, 어바웃클래식그룹, 프라임필 오케스트라 등에 의해 연주되었고 대표 작품으로 2020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창작부분 최우수상작 <김부장의 죽음>, 가족 오페라 <파파가든>, 문화역서울 284기획공연 <이오쌔롱-경성 짜-스 밴드>등이 있다.

장르를 넘나들며 경계를 허물다

- <김부장의 죽음> 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2019 올해의 신작 오페라
- 2020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창작부분 최우수상
- <이오쌔롱 - 경성 짜-스 밴드>(문화역서울284 기획공연)
- <콩쥐 팔쥐> (화음 프로젝트 그림책 음악회)
<Mash-up> (화음 프로젝트 현대 X brid 클래식)
- <A Song on C# and G>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연주
- 제12차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 개막공연 음악감독
- 대한민국 연극제 최종 선정작 <각다귀들> 작곡
- 아르코 오페라 창작 아카데미 최종공연 <파파가든>
- 피아노와 내레이션을 위한 <봄이 오는 소리> 한국 작곡가협회 공모선정
- 퍼커션 앙상블을 위한 <Bedtime Story> ACL KOREA)
- 뮤지컬 <성공률 100%>

영감의 원천

메멘토 모리 (2021, 초연) _____ Gtr. 김우재

1. 세이킬로스 비문 주제에 의한 캐논
2. 낮선 여인숙에서의 하루
3. 모든 사랑스런 것들 사이에 내 사랑은 있었네

개와 늑대의 시간 (2021, 초연) _____ Pf. 양은아 양수아

황금시절의 바다소나무는 어디에? (2021, 초연)
Cb 박상현, 최세열 Vibes 양하민 DS 김민찬

이태원 야상곡 (2021, 초연) _____ Euph 이태영 Pf 양은아 Cb 최세열 DS 김민찬

1. 밤거리에서 튜브나 불어볼까?
2. 바에서 합주나 한잔
3. 루프탑 환상곡

북치는 아저씨 (2021, 초연) _____ Perc 고석진 Pf 양수아 Cb 박상현

메멘토 모리

기타리스트 김우재는 오페라 <김부장의 죽음> 연주를 통해 만났다. 평소에 기타 음색을 좋아하던 차에 일반적인 구성은 아니지만 오케스트라에 기타를 넣었다. 핑거스타일 탱고부터 코드 연주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연주를 부탁드렸는데 성실히 준비해 주셨고, 기타를 위한 창작곡을 써준다면 무엇이든 연주하고 싶다 해주셔서 언젠가 꼭 기타가 주인공인 곡을 써보겠다 얘기했었다

처음 기획 단계에서 기타 솔로곡의 제목은 <남산 블루스>였다. 막연히 기타리스트가 남산 팔각정에 앉아 기타를 치는 모습 정도를 연상했었다. 기타리스트가 혼자 남산에서 기타를 친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상상을 하다 보니, 결국 나와 김우재 기타리스트를 연결시켜 준 전작 <김부장의 죽음>이 떠올랐다. 다시 '죽음'이라는 소재를 꺼냈고, <김부장의 죽음> 서곡에 쓰였던 세이킬로스 비문에 적혀있던 가사 외에, 죽음에 관한 또 다른 비문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문구들을 찾았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기법을 사용해야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기타리스트가 두번, 세번, 다시 연주하고 싶은 곡이 나올까 고민하며 써 내려갔다.

Memento Mori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1. 세이킬로스 비문 주제에 의한 캐논

*그대 살아 있는 동안 빛나기를. 삶에 고통받지 않기를
인생은 찰나와도 같으며, 시간은 모든 것을 앗아갈테니*

2. 낯선 여인숙에서의 하루

*In light of heaven, the worst suffering on earth, a life full of the most atrocious
tortures on earth will be seen to be no more serious than one night in an inconvenient hotel"*
- Mother Teresa

3. 모든 사랑스런 것들 사이에 내 사랑은 있었네

Among all lovely things my love had been"
- Williams Wordsworth



김우재 _ 기타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 독일 Hochschule für Musik und Theater Hamburg 졸업
- 2007. 프랑스 'Concours International de Guitare en Cerdagne'에서 3위
- 성남국제기타페스티벌SIGF 음악감독
- 서경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송의여자대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강사 역임
- 한국기타연주가협회 부회장
- 서울시립대학교, 수원대학교, 백석예술대 등 출강

개와 늑대의 시간

양은아, 양수아는 자매 피아니스트로 양은아 연주자에게는 2016년 오페라 <파파가든> 연주를 맡기며 친분을 맺은 이후 지속적으로 연주를 부탁한다. 이들 자매 사이에는 가장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양은아가 대중적인 클래식을 지향하는 반면 양수아는 현대음악 연주를 즐긴다 들었다. 이들 자매와의 인연은 나에게 ‘개와 늑대의 시간’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낮과 밤이 혼재하는 그 경계의 시간이 주는 지독히 낭만적이면서 쓸쓸한 아름다움. 낮과 밤이 섞이는 이미지를 Lava Lamp의 움직임에서 착안하여 작곡하였다. 관념, 혹은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대로 오선지에 그린 형태의 곡으로, 자매 피아니스트라는 특징을 살려 둘의 호흡이 중요한 음악을 만들어 보았다. 페달을 눌러놓은 채로, 불임줄로 이어지며 정해진 박자표가 없이 움직이는 리듬은 해 저무는 하늘에 색이 번지며 출렁이는 이미지를 표현한다.

쓸쓸한 아름다움, 그 경계의 만남



양수아 _ 피아노

-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수석입학, 졸업, 동 대학원 음악학 석사 졸업
- Hochschule für Musik “Hanns Eisler”, Berlin 베를린 국립음대 ‘한스 아이슬러’ 전문연주자 과정 - 졸업 (실내악 및 독주 디플롬 취득), 동대학 최고연주자 과정
- 1998’ Hanns Eisler Preis 수상 및 Hanns Eisler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출연
- 중앙대학교, 경기예고, 전주예술고등학교, 단국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평생교육원 - 강사 역임, 예인교수양상블 상임반주자 역임
- 현 충남예고,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출강, 피아노양상블 ‘Duo YANG’ 대표, - 피아노양상블 Piano On 단원, 연주단체 ‘양상블포유’ 연주이사



양은아 _ 피아노

- 한양대학교 재학중 도독
- Hochschule für Musik “Hanns Eisler” Berlin 최고성적 Diplom 졸업
- Hochschule für Musik “Carl Maria von Weber” Dresden 최고성적 Konzertexamen 졸업
- 2009 Havelländische Musikfestspiele 참가
- Berlin KWA Stift, Augustinum Kleinmachnow, Gemeindehaus Altpankow, Musikgymnasium 등지 연주활동
- Meissen 극장 ‘Peter Tschaikowsky와 그의 마이센에서의 활동’ 초청연주
- 베를린 Puppentheater Charlottenburg 전속 피아니스트 역임
- 자브뤼켄 Classical MUSIC Academy 강사 역임
- 목원대학교 강사 역임

황금 시절의 바다소나무는 어디에?

한 명의 클래식 더블베이스스트와 한 명의 재즈 더블베이스스트를 위해 쓴 곡이다. 작품을 계획할 당시 제목은 <반포대교 위에서>였는데, 이는 클래식 연주자가 주로 연주하는 예술의 전당과 서울에서 가장 그럴듯한 재즈를 들을 수 있다는 이태원 재즈클럽 사이의 중간 지점이라는 데서 착안하였다.

같은 악기를 다른 방식으로 연주하는 연주자들을 한 곡 안에서 만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은 2014년 <Mash-up>이란 곡을 쓰면서 생겨났다. 당시엔 더블베이스가 위주인 곡을 써본 적이 없어 재즈연주자에게만 익숙한 빠르게 뜯는 패세지를 넣은 곡을 클래식 연주자에게 주었고, 당연히 연주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렇다면 더블베이스라는 악기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명의 연주자가 필요할 경우, 둘 중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방법으로 곡을 쓰고 싶어졌다. 이 생각을 한 지 6년만에 드디어 첫 시도를 해보았다.

주로 길게 이어지는 선율을 활로 연주하는 클래식 베이스스트와, 리듬섹션의 일원으로 주로 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재즈 베이스스트의 매력을 하나의 곡 안에서 느껴보고 싶었다. 그런데 어떻게? 라는 질문이 남았다. '클래식', '재즈', '너무 아방가르드 하진 않게' 등등 많은 생각이 오갔다.

그러다 갑자기 든 엉뚱한 생각, 이 순간만 '1930년대 조선의 김해송'이 되어보자. 100년쯤 전, 막 태동하는 대중음악에 장르 불문의 음악을 만들어낸 작곡가. 클래식이니, 재즈니, 창가니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작곡가처럼 해보고 싶었다. 이제 막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 아무 편견도 선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음악의 시작은 아리랑같은 "솔라솔라"로 시작해 긴 선율로 흐르다 난데없이 스윙 리듬이 들어온다. 내침김에 김해송의 "다방의 푸른꿈" 선율도 차용했다. 그냥 그렇게 쓰고 싶은 대로 써보았다. 김해송은 한 때 월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의 최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해송은 어디에 있을까?



박상현 _ 더블베이스

-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수석 입학졸업
- 독일 würzburg음대 석사 졸업
- 독일 mainz 국립음대 konzertexamen 만장일치 졸업
- 독일 rheinland pfalz주 콩쿠르 전체 악기부문 입상
- 계원예술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출강역임
- 현 과천시립교향악단 수석, kt챔버 멤버, 앙상블 바씨오소 리더
- 예원, 서울예고, 선화예고
- 추계예술대학교, 서경대학교 출강



최세열 _ 더블베이스

- 경희대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졸업
- (현) 광신대학교 음악학부 전임교수
- 뮤지컬 겐틀러, I love u because, Cats, Avenue Q
- 말로밴드, 임달균 퀸텟, 김덕수사물놀이패, 안숙선 협연 및 윤복희 데뷔 60주년 및 전국투어
- 재즈트럼펫 연주자 Hino Terumasa 전국투어
- 이정식 퀸텟, 박성연, 윤희정, 나윤선, 김준, 웅산, 박정현, 박효신, 바비킴, 호란, JK 김동욱, 조영남, BMK, 유열, 바다, 현진영, 이은하, 이광조, 임희숙 등 다수 공연 및 방송 협연



김민찬 _ 드럼

- 경희대학교 포스트 모던 음악과 드럼전공.
- 2012 월간 재즈피플 Rising STAR 선정.
- 세계35개국 투어활동
- 현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양하민 _ 비브라폰

- 성신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음악교육 석사 졸업
- 음악교육신문 콩쿠르 입상
- 아카데미 타악기 앙상블 멤버

이태원 야상곡

유포니움 연주자, 이태영은 다른 악기를 하는 지인이 유포니움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멀티포닉까지 내는 대단한 친구가 있다며 자주 자랑을 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 대면했을 때 그는 유포니움이라는 다소 생소한 악기를 하는 이유로, 오케스트라에 속하거나, 솔로 연주를 할 기회가 많이 없고, 유포니움만을 위한 특별한 곡이 별로 없다며 유포니움을 위한 곡을 써준다면 기꺼이 연주하겠다고 했다. 내가 쓸 곡을 기꺼이 연주해 주겠다는 말처럼 작곡가에게 감사한 말은 없다. 그래서 도전해 보기로 했다. 유포니움을 위한 곡을 한 번 써보기로.

이태영의 첫인상은 말끔하고 젊은 청년의 느낌이었고, 이태원에 살고 있다고 했다. 이태원은 다양한 인종,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여러 가지 색을 내는 곳이며, 음악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굵직한 대중음악인들을 키워낸 공연들이 이루어지던 곳이다. 부드럽고, 거칠고, 스산한 유포니움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색깔의 소리들을 이태원이라는 장소가 연상시키는 다채로운 이미지에 녹여보려 하였다.

1. 밤거리에서 튜브나 불어볼까?

*Electronic sound*위로 유포니움 소리가 엮인다.유포니움 파트는 즉흥적인 성격이 강하며, 미리 만들어진 *Electronic sound*를 기반으로 연주자와 합의하여 짜여졌다. 선율 재료는 혼돈을 상징하는 *Elektra Chord*를 기반으로 한다.

2. 바에서 합주나 한 잔

빠른 스윙 리듬에 얹힌 조성이 모호한 피아노 트리오 음악 위로 *Petrushka Chord* 기반으로 한 유포니움 선율이 더해진다. *Petrushka Chord*는 불협인듯 아닌듯 활기찬 바의 모습을 상징한다.

3. 루프탑 환상곡

스크리아빈의 *Mystic Chord*와 유포니움의 *Multiphonic* 사운드로 깊은 밤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표현한다. 생각에 잠기다 갑자기 감정이 요동치듯 빠른 패세지가 이어지고, 이내 다시 잠잠해진다.



이태영 _ 유포니움

-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졸업
- 2004년 Chicago music institute Brass band solo contest 3위
- 2010년 제 6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유포늄 3위 (한인 최초)
- (현) 중앙대학교 출강
- 숭실대학교 콘서바토리 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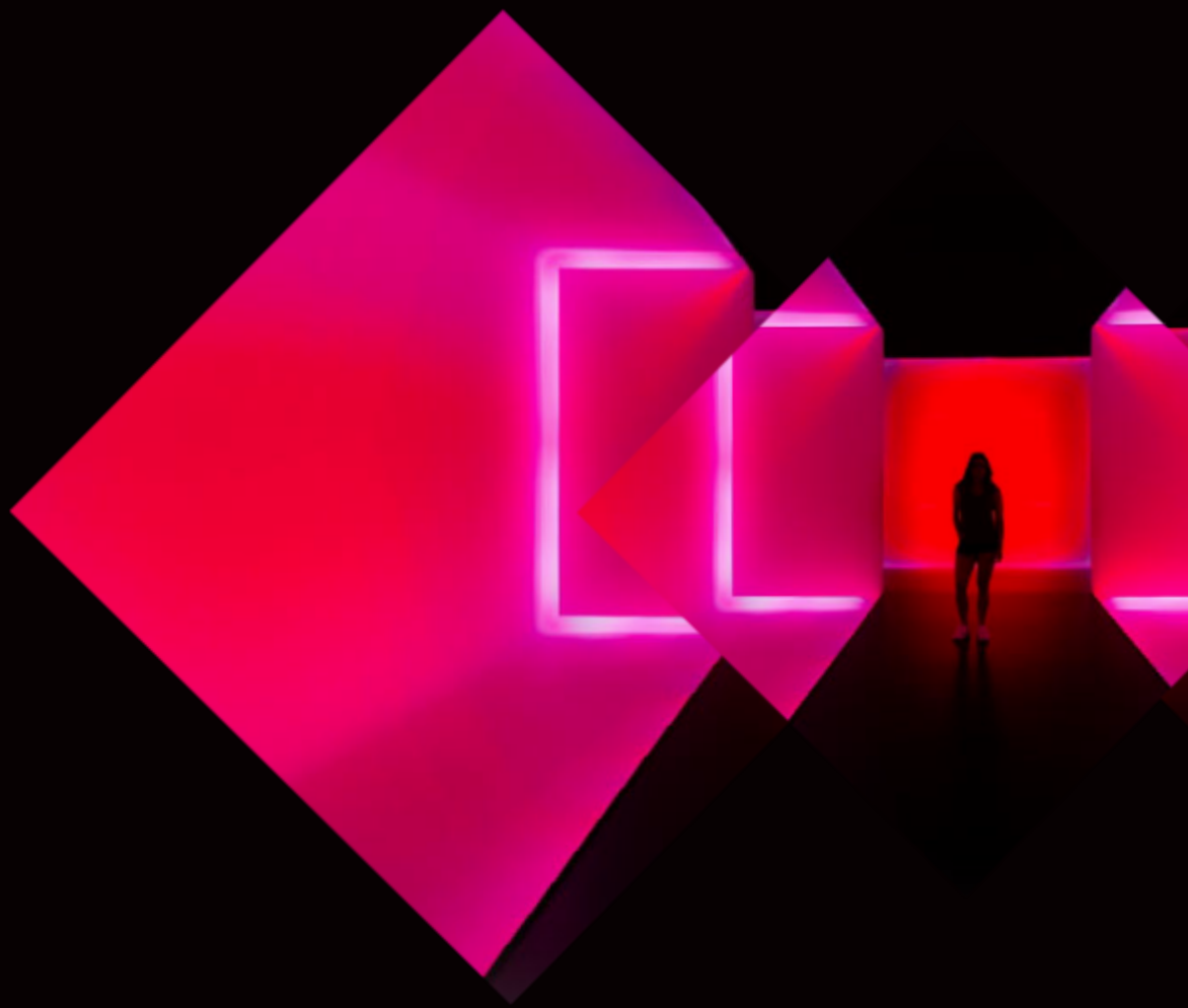
북치는 아저씨

타악 연주가 고석진은 고성오광대 전수자이자 서울예술단 단원이며, 고석진퍼커션의 대표로 화려한 경력만큼 독창적인 연주자로, 아이디어도 많고 누구보다 열정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러 만난 날, 그는 곡 이야기를 나눌 겸 남대문시장을 걷자고 했다. 자신은 부산의 시장 골목에서 자랐으며, 언젠가 시장에 관한 음악을 연주하고 싶다고 했다. 어린시절 시장에서 들던 소음, 시장판 싸움판 소리가, 그 리듬이 체화된 소년은 북치는 아저씨가 되었다. 피아노, 더블베이스가 미니멀하게 반복되는 선율을 연주하면 타악기 소리는 일정한 규칙 없이 자유롭게 들어온다. 피아노와 베이스의 움직임이 점점 클라이막스로 향하고 북의 소리도 점점 불규칙한 개입에서 규칙적인 개입으로 자리를 잡을 즈음, 북치는 아저씨가 된 고석진의 솔로가 시작된다. 연주자의 참여가 가장 두드러지는 곡으로, 마치 작곡가가 그린 바탕화면 위에 연주자가 대상을 직접 그려 넣어주듯이 창작되었다.



고석진 _ 퍼커션

- 재)서울예술단 단원
- 고석진퍼커션 대표
-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 이수자
-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한국음악전공 석사졸업
- 서울예술대학교 무용학과 한국무용전공 졸업
- 소리꾼 "장사익" 타악(모듬북연주)세션 1997년~2013년
- 제6회 전국 명인농악경연대회 개인부문 우수상 수상 2004년



오 예 승 작 곡 발 표 회

영감의 원천

이 곳에서 너를 만났다

제작 판이오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문의 paniostage@gmail.com



www.panio.kr